

24. 가이드 투어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매주 월요일에 영어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많은 미술관이 월요일에 휴관하지만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개관하고 있습니다. ‘웰컴 먼데이’를 내걸고 분재를 사랑하고 폭넓은 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를 따라 해설해 드립니다. 컬렉션 갤러리, 전통적인 일본식 방에 전시된 자시키카자리의 분재 전시품, 분재 정원을 찬찬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투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그 시간대에 요청이 있으면 진행되며, 가이드 1 명당 최대 참가 인원은 20 명입니다(단체 관람은 관람 희망일 전월의 15 일까지 예약해 주십시오). ‘웰컴 먼데이’ 가이드 투어는 무료로 진행되므로 미술관 입장권만 구입하시면 됩니다.